



김민석 총리, 연말연시 치안·재난 대응 현장 격려 ...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

- 김 총리, 연말연시 대비 경찰·소방 비상근무 현장 격려 방문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1일(수)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했다.
 -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경찰·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고,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- 김 총리는 먼저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,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양천경찰서 및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,
 - “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,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,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하였다.
 - 또한,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“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,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달라”고 격려하였다.
- 이어 양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양천소방서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안전대책을 보고 받고,
 -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경계 근무에 임하고 계신 양천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,

- “양천은 교육시설과 언론사, 노후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, 대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
- 아울러 정부도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성훈 (044-200-2082)
		담당자	경 정	이은일 (044-200-8828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장준경 (044-200-2683)
		담당자	소방위	이지수 (044-200-2343)